

<b>분류</b>	주일 강단 메시지
<b>제목</b>	"성령의 열매"
<b>성경</b>	갈라디아서 5:22-24
<b>일시</b>	2018년 03월 18일
<b>장소</b>	휴스턴 안디옥 교회
<b>설교</b>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5:22-24)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 23. 은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요약 자료 ♣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22-24)

1.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 1) 사랑입니다.
- 2) 화평입니다.
- 3) 화평입니다.

2. 사람에게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 1) 오래 참음입니다.
- 2) 자비입니다.
- 3) 양선(선행)입니다.

3. 자신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 1) 충성입니다.
- 2) 은유입니다.
- 3) 절제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 갈라디아서는 너무 중요하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을 사도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언을 했던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결코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곧 복음이다." 이것을 외쳤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 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지만 오랫동안 내려왔던 유대주의의 전통이 있었다. 그게 예법, 할례, 모세의 규정들을 다 지켜야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라고 그 안디옥 교회를... 또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 미혹했다. 거기에 흔들린 것이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거다." 그만큼 확실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나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죽은 나'가... 누가 죽었는가? 내가 죽은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이 죽은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배경이 뭐가? '사탄'이다. '죄'이다. '죽음'과 '지옥'이다. 그 속에 내가 있었다. 그 속에 우리의 가문이 있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었고 우리의 후대들이 있었다. 그거를 예수님이 완전히 끝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재창조 된 나'이다.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누군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이 헛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새 것이다. 늘~ 새롭다. 겉은 추레하지만 날마다 뭐 한다? "새롭다."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희어지는 것, 주름이 생기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속지 마시라. 비록 나는 이렇지만 내 안의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다.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누릴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 하나?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불가능한 나'이다. 뭐가? "절대 우리는 '죄', '사탄', '지옥'...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절대 가능하다." 이러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나는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뭘 얘기 하나?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하갈과 또 사라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구원 받음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구원이냐? 아니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가?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여호와 의 말씀을 좇아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의로 말미암아... 여겼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삭이 믿었던 그리스도.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것을 바울이 확실한 증거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구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2018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의 그 흐름 가운데 제일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 만민을 위해 것치를 둔 여러분 자신이 '구원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발판이 뭐라고 했다?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 받은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제가 오늘 한 성도와 얘기를 했다. 휴스턴에 많은 교회가 있다더라. 그리고 많이 다녀 봤다. 그런데 다녀 보니까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하던 말이다.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 오직 예수만 말하는 목사님... 오직 예수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자기는 너무 사모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결단을 했다고 한다. 정말 예수만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그런 교회... 어디 있는가? 찾아 봤는데... 그게 휴스턴 안디옥 교회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등록을 했다. 1부 예배 때 한 성도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다. 정말 휴스턴에... 정말 오직 예수만 말하는 그런 교회... '나는 시설도 보지 않고 시스템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그런 교회가 없나?'하고... 근데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연락했다. 전화도 하고 또 카톡으로 연락하고 오늘 그 가족이 함께 교회 1부 예배에 나오셨다. 전 보면서 '아!~ 정말 오직 예수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구나.' 제가 볼 때는 20년 넘게 오직 예수만 말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계속 계신 여러분은 확실한 제자다. 휴스턴을 살릴 충분한 제자가 된다. 주변의 무슨 소리를 들어도... '거리가 멀다.' '뭐 시스템이 어렵다.' 핑계다.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러니

까 이 고백을 누가?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 사라와 이삭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바로 바울이 계속 강력하게 얘기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겠는가? 그게 바로 '성령'이다. 자... 여러분, 나무를 볼 때 뭘로 평가하는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아는가? 꽃을 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지금 저기 꽃이 피 있는데... 저게 무슨 나무인가? 그냥 꽃나무인가? 저 나무는 그냥 꽃만 폼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다. 봄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는가? 꽃가루 때문에 알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덕분에 약국은 돈 많이 번다. 기타 등등... 자... 나무가 잎이 썩고 꽃이 썩었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평가 할 수 있는가? 결과는 뭐가? 그 나무가 무엇을 맺었느냐?에 따라 나무의 종류가 결정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다. 7장 16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결국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게 돼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맺는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한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결국은 열매를 따라 결국은 나무가 평가 되는 거다. 죄의 열매는 뭐겠는가?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하지만 '의'의 열매는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다. 심지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오늘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있었을 때... 과거에 구원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다.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한다. 바로 '죄 덩어리'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를 말한다. 교회 다녀도 육체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육체' 곧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죄덩어리가 맺는 열매는 이런 것이라라고 말한다. 함께 보겠다. 19절로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다.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를 가지고는... 그럼 '육체'가 어떤 육체인가? '하나님 떠난 육체'이다. '죄의 육체'이다. '사단에게 장악 된 육체'이다. 구원 받지 못한 자는 절대 구원...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 받는 것이다. 결국 '죽은 나'... '버림받은 나'... '사단에게 장악 된 나'...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 나'를...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다. 다른 복음으로 살릴 수가 없다. 돈과 명예로는 살릴 수가 없다. 시편 3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왕들이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구원은 세상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만 된다. 그 은혜의 복음이 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뭐하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피흘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사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최고의 선물과 비밀을 여러분

은 간직하게 됐다. 그 '비밀'이 뭐가? '성령'이다. 오늘 성령을 가진 자는 아홉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게 어떤 열매... 크게 구분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매'... 또 '사람과 이웃에 대한 열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 되는 열매'가 있다. 오늘 구원 받은 성도에게 있는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누구에게 대한 열매라고 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매다. 결국은 여기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 뭐라고 되어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되어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매 중에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성령께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 사랑이 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은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십자가에 피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남편 사랑을 좀 못 받은 분들... 아내의 사랑을 좀 못 받은 분들...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은 분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도 부족하신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금 남편에게서 사랑을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징징 짜지 마시라. 아내에게서 사랑을 좀 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너무 구박하지 마시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랑의 증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그게 누가 하는 역이라고 했다? 성령께서 하는 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성령이 함께 하는거다. 그 성령이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기 이전에 여러분... 누구부터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힘과? 성령의 역사로... 이게 쥔 중요한 첫 번째 열매란다. 두 번째 열매는 뭐라고 기록 되어있나? "희락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또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한다. 기쁨. 여러분, 기쁘신가? 뭣 때문에 기쁘신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근원이 궁급하다. 저는 뭐가 그렇게 기쁘신가? 보너스 받으셨는가? 혹시 텍스 리턴 받았는데 기대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받으셨으면... 기분 좋겠죠? 지나가다 백불짜리... 혹시 큰 빌 하나 좃어도 기분 좋죠? 자식들이 혹시 좋은 성적 받아서 아놀 스투던트(Honor Student)라고 스티커 하나만 받아와도 굉장히 기쁘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한다. 바로 '진리'가 누구인가? "진리를 알지니 곧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이다. 그거를 성령께서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다. 여러분,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다. 그게 곧 하나님께 대한 열매 다라고 기록한다. 여러분, 바로 진리의 복음을 계속 들으니 얼마나 기쁘나? 저도 다른 말보단 예수를 말하는게 제일 기쁘다. 예수만 말 할때 제일 기쁘다. 다른 말 하려면 정말 피곤하다. 심지어는 집에서 욕을 많이 먹는다. "당신 입에서는 복음만 말하면 되겠어. 제발 딴 말 하지마." 딴 말하면 계속 저는 막... "그게 말이 돼?"하면서... 막 대들고... 자녀들이 "아빠~ 그런 소리 하지말라."면서... "아빠는 다른 얘기 하지말고 오직 복음만 말해." 그런다. "복음 말할 때 아빠가 제일 멋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하다. 말하지 않는다. 말 했다가는 오히려... 그런 말이 있지 않나?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그래서 성도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 했나? 진리 안에 기뻐한다.라고 되어있다. 그게 성령께서 알게 하

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매이다. 그러니까 첫 켄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진리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을 째~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받은 구원을 생각하며 말씀묵상 할 때... 여러분, 뭐가 오는가? 기쁨이 오지않는가?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중에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라고 되어있다. 화평이 뭘 얘기하는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는가? 화목해 됐다. 그 화목해 하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이다. 곧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매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다른 구원 받은 성도에게서 맺혀지는 열매이다. 그럼 이 세가지를 종합하면 결국 뭐가?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진리의 복음을 아는 사람... 화평의 복음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최고의 시간이 될까요? '예배'이다! '기도'이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시간이 언제이겠는가? 예배시간이다. 저는 다른 때보다 진짜 예배 때 너무 행복하다. 모르겠다. 저만 흥분해가지고 열내는지 모르겠만. 전 예배 때가 너무 좋은거다. 찬송 할 때 좋고, 기도 할 때 좋고, 예배 할 때 좋고... 시간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기 시계를 자꾸 보니까 자꾸 끊어야 되니까. 더 얘기를 못하는게 늘 아쉽다. 항상. 하나님께 대한 열매. 이 열매를 누가 주셨다고 했나? 구원 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신 열매라라고 되어있다. 자... 두 번째, 구원 받은 성도에게 있는 두 번째 큰 열매가 뭐겠는가? 바로 사랑... 곧 이웃에 대한 열매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을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고 미련해 보인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참 안타깝지 않은가?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친단 말이다. 그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 그게 크게 세 가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하다가 기도하는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조금 해 하지 마시라. 이게 바로 뭘 얘기 하는가? 사람에게 대한 열매는 곧 뭐냐 하면 전도에 대한 열매이다. 선교에 대한 열매이다. 결국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가? 반드시 열매 맺는 '그 날'이 온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뭘지 아시는가? 참게 하는거다. 참는 것도 어느 정도지... 우린 일정시간 지나면 못 참지않는가? 참다가~ 참다가~ 결국 못 참으면 어떻게 하는가? "야!~" "너!~" "그러지마!~" 막 그러지 않는가? 제가 볼 때... 이번 합숙훈련 때 그 인도하신 장로님이 자녀 얘기를 하시더라. 제가 사실 궁금했었다. 자녀가 램턴트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게임에 빠져있는거다. 지역에서 탐이다.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게임에 도가 튼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가 게임을 너무 하니까. 옆에서 볼 때 어 떤신가? 여러분? 완전히 게임 정도가 아니라 게임 중독이 돼 버렸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장로님, 혹시 자녀가 그렇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서 공부도 안 하고 램턴트의 축복도 못 누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장로님은 어떠세요?" 제가 솔직히 대답을 듣고 싶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속이 썩죠." 그 아이 때문에 아내가 엄청 신경을 많이 썼단다.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아내란다. 그러나 자기에게 한 가지가 있었단다.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란다. "나는 이 아이를 믿는다."고... "그리고 이 아이를 구원 하시고 축복하실 이 아이를 믿는다."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할 거라고." 하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게 뭘요? '기다림'이었다. 결과는 어떤지 아시는가? 그 후 10년... 중학교 3학년때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아이가 뭐하는지 아시는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신학을 정립하는 신학자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바로 '오래 참음'이다. 그 힘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자녀 때문에... 혹시 가정에 불신... 혹시 형

제가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 있으신가? 이 은혜를 받으시라.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가졌다. 성령께서 오래 참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은 참는 동안 뭐 하시는가? 기도 해야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라. 또...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열매가... 사람에게 대한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나? '자비'란다. 또 다른 말로 '너그러운 마음'이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선 안 나온다. **우린 그런 꼴 보면 지적해야 되고 말 해야 되고 듣든지 말든지 일단 썩 붙여야 된다.** 근데 어떤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는 어떤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 모르니... 구원 받지 않았으니... 저거라도 해야지. 하지만 진짜 은혜를 알면 바뀔텐데...' 그 여유가 생기지 않는가? 여러분, 불신자 보면서 '왜 그러니?' 할 필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짓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의 중독... 집착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란 말이다. 언젠간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실테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대한 열매는 결국은 '기다림'이었고... 결국은 '너그러운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뭐가? '양선' 착한 행동이다. 그렇게 되어있다. '선행'... 불신자가 다 여러분을 본다. 지금. 여러분의 선행을 다 지켜본다. '뭔가 다르다.' 라는게 있다. 사실은 성도에게는. 근데 선한 행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행동거지를 면밀히 본다. 지금. 호시탐탐. 다 지켜본다. 정말 믿는 사람인지 대충 아는 사람인지 안다. 지금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해보이지만... '아, 내 아내...' '아, 내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불신자가 다 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착한 행실로 뭐가 오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게 대한 열매는... 저는 한 마디로 '전도와 연결 돼 있다.'라고 본다. '선교와 연결 되어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니까 뭐가 생기는가? '소망'이 생긴다.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먼저 자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리다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 시킨다. 결국은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 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맺어야 될 열매.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 또 이웃에 대한... 사람에게 대한 열매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열매도 있다. 그 열매가 바로 뭘지 아시는가? '충성'이다. '충성(忠誠)'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주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충성을... 사실은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충신이라고 한다. 충신. 그러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되겠는가?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 하는 단어가 바로 '충(忠 - 가운데 중 + 마음 심 心)'이라는 단어다. '충(忠)' 중심에... 마음에 변화가 없는 사람. 내 센터(Center)에 그리스도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뜻으로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 맑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나? '충성'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또 하나... 자신에 대한 열매가 뭐가? 충성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 '운유'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달리는 말... 야생말이 얼마나 힘이 좋고 에너지가 넘친다. 근데 그 말을 길들일 때 쓰는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재갈'이라는 거다. 이 재갈을 턱 이 사이에다 끼면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통제하기가 쉬운거다.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막 몸부림을 치지만 이제 그 재갈을 딱 물린 이 말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는가? 야생마가 아니라 경주마가 돼 버린다. 막 들판에 뛰어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싸

움에 나가서 전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다.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면 뭘로 준비돼야 되는가? 말씀으로 무장 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모세라고 한다. 모세는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다. 뭘로 길들여졌는가?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 했는가? 모세가 기록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바로 이게 뭐냐? 내가 먼저 사는 것이다. 내가 말씀위에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거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겠는가? 못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마지막 자신에 대한 열매를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절제'라는 말은 뭐 말인가? 하고싶은데 안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참는 거다. 이게 힘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은 절제 할 수 있다. 근데 힘 없으면 못 한다. 여러분이 진짜 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된다. 그거를 넘어서면 여러분은 힘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참으면 여러분은 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절제 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관리 하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절제라고 그러는 거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합숙... 1차 합숙...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 했던 합숙과 또 훈련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하면 '이 모든게 다 은혜구나.' 근데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은혜의 비밀인 '복음'을 알게 된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비밀은 결국 뭐냐? 복음의 말씀이다.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니까요?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래서 중요한 일곱 단어를 결론으로 주고 싶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전해보겠다. 첫 째는 바로 뭐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다.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자,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잖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자, 그러면 구원 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일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단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동행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문으로 바꾸면 된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여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동행해달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이다. 첫 째는 '성령의 내주', 둘 째는 '성령의 인도와 동행',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시간이 곧 무슨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게 세 번째... '성령의 역사'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의 권능'이라고 한다. 성령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 모든 흑암, 귀신을 꺾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사... 흑암을 꺾고 일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하면... '성령의 권세'라고 한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그렇게 기록 돼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명하는 거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누가 동원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 된다. 이걸 보고 '성령의 권세'라고 한다. 그럼 여섯 번째는 뭐냐하면 '성령의 보증과 배경'이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 곳에 가도록 끝까지 우릴 인도하시고 배경삼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과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 '성령의 증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로 바꾸시라.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여, 가는 곳 머문 자리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 저주를 결박하시고 하늘나라 배경삼고 오늘도 말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할 때 오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는 열매를... 이웃의 열매를... 그리고 자신에게는 주시는 이 열매로 한 주간 여러분은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는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b>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b>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